

Analysis of Religion-Related Content in Korean History Video Lectures for Foreign Learners: Focusing on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Jihae Oh^{1*}, Jean Park², Jihye Choi³, Esther Kang⁴, Hoilym Kwon⁵

^{1,2,3,4,5}Korea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distribution and structural patterns of religion-related content in Korean history video lectures for foreign learners. Although religion and ideology are embedded across the curriculum as contextual elements rather than independent instructional objectives, empirical research quantifying their actual exposure remains scarce.

[Contents] Using lecture texts from the K-MOOC K-Academic Dissemination Project, this study built a keyword dictionary covering seven religious types. Text mining (TF, TF-IDF) and social network analysis (SNA) were employed to examine vocabulary distribution, chronological exposure, and semantic networks.

[Conclusions] The findings reveal three key points. First, each religious type formed a distinctive lexical network centered on its functional role in Korean society rather than its doctrinal system. Second, dominant religious discourse shifted dynamically over time—from prehistoric folk beliefs to Buddhist/Confucian dominance, modern national religions, and contemporary pluralization. Third, religious keywords consistently functioned as structural bridges connecting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ncepts. Thus, religion in these lectures is represented as a sociocultural mediator rather than an independent belief system.

[Keywords] foreign learners, Korean history video lecture, religion-related content, text mining, social network analysis, K-MOOC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ostering a New Wave of K-Academics"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KSP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1-KDA-1250009)

* **Corresponding author** Jihae Oh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E-mail : dearjhae@korea.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의 종교 관련 내용 분석: 텍스트 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오지혜^{1*}, 박 진², 최지혜³, 강에스더⁴, 권희림⁵

^{1,2,4,5}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³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 텍스트에서 종교 관련 내용의 분포와 연결 구조를 계량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종교·사상은 역사·문화 이해의 맥락으로 편제되어 있어 외국인 학습자는 강의 수강 중 의도하지 않은 채로 종교 관련 내용에 반복 노출될 가능성이 크나, 이를 실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K-MOOC K학술확산연구사업의 한국사 동영상 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민간신앙·민족종교·불교·유교·도교·천주교·개신교 7개 종교 유형의 키워드 사전을 구성하고, 텍스트 마이닝 어휘빈도분석(TF, TF-IDF)과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활용하여 종교 유형별 어휘 분포, 시대별 노출 정도, 키워드 연결 구조를 분석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종교 유형은 독립된 신앙 체계보다 한국 사회에서의 기능적 역할 중심으로 고유한 어휘군을 형성하였다. 둘째, 종교 노출 비중은 선사의 민간신앙에서 고대·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 독점, 개항기 민족종교 부상, 현대의 종교 다원화로 전이되었다. 셋째, 종교 키워드는 전 시대에 걸쳐 정치·사회·문화 개념어와 연결되는 핵심 가교로 기능하였다. 이는 외국인 대상 한국사 강의에서 종교가 교리 체계가 아닌 사회문화적 매개체로 재현됨을 실증한다.

[주제어] 외국인 학습자, 한국사 동영상, 종교, 텍스트 마이닝, 사회연결망 분석, K-MOOC

I. 서론

한국의 역사는 불교·유교·도교·기독교·민간신앙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깊이 작동해온 역사이다. 불교는 삼국시대 왕권 강화와 국가 통합의 이념적 기반이었고, 성리학은 조선의 통치 원리와 신분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가치체계였으며, 기독교와 동학은 근현대 사회 변동과 민족 운동의 동력이었다. 이처럼 종교와 사상은 한국사에서 역사적 사건과 구조를 설명하는 불가결한 맥락이며, 이는 한국사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사상 관련 내용은 독립 단원이 아닌, 각 시대의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 구성 요소로 분산 편제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140-154; Ministry of Education, 2022: 93-105). 이는 역사 교육 과정에서 종교 관련 내용이 독립적인 교수 목표가 아니라 역사·문화 이해의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수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강의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함께 한국학 교육 수요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K-MOOC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한국사 동영상 강의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K히스토리 학술확산연구단과 연세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소는 외국인 및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사를 정치·사회·문화·사상 등 다층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강좌 시리즈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의 종교·사상적 배경지식이 제한적이므로 강의에서 반복 제시되는 특정 종교 키워드나 연결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교 관련 개념이 등장하는 맥락과 연결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이해 형성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K-MOOC 기반 한국사 강의는 해외 학습자에게 한국을 설명하는 대표적 디지털 한국학 콘텐츠이므로, 강의 내 서술 방식에 대한 분석은 한국학 콘텐츠의 국제적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노출의 실제 규모와 구조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교과서의 종교 서술 방식이나 균형성을 질적으로 검토하는 데 머물렀으며(Lee, 2003: 101-119; Kim, 2018: 1-14), 동영상 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종교 관련 내용의 비중과 분포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 대상 강의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결합한 실증 연구는 전무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 텍스트에서 종교 관련 내용의 분포와 구조를 계량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 텍스트에서 종교 유형별 관련 어휘의 출현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 텍스트에서 시대별 종교 유형의 노출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 텍스트에서 시대별 종교 키워드의 연결 구조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역사 교육에서 종교·사상의 맥락적 이해

역사 교육에서 종교와 사상은 독립 교과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 요소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각 시대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특성, 특히 정치·사회·문화적 변화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핵심 배경으로 등장하도록 편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는 인문환경과 인간생활을 이해하는 ‘문화’의 범주로 다루어지며(Ministry of Education, 2015: 96), 종교 자체의 교리보다는 생활양식을 만드는 배경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편제 방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어 종교와 사상을 역사적 사건과 구조를 설명하는 배경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방향이 지속되고 있다. 공식 교육과정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직접적 서술 지침이 없으며 특히 한국사 교육과정은 한국사를 변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논쟁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 편성의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보편적 탐구 원칙에 따라, 한국사 내 종교는 독립된 교리, 종교 자체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이끈 정치·사회적 맥락 및 문화적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분산 기술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93). 실제 초·중·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종교·사상 관련 내용은 각 시대 단원의 ‘문화’와 ‘사회’ 영역에 분산 배치되어 일관되게 역사적 흐름의 배경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 교과서의 종교사 서술을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신광철(Shin, 2006: 281-298)은 제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종교사 서술이 주로 문화사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사·사회사·경제사 영역에서 종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불교 서술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유교·도교·무속·천주교·개신교 등은 각 시대의 사회 구조와 생활세계 속에서 수행한 기능이 제한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유요한(Yoo, 2009: 39-57) 역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종교를 역사적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민족적 특수성이나 정치·경제적 요인의 부산물, 또는

특정 시대의 문화 현상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요소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사 교육에서 종교·사상이 각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서술에서는 종교 자체의 상징체계, 세계관, 사회문화적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종교·사상이 별도의 교수 의도 없이 광범위하게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습자가 종교 지식 습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강의 전반에서 종교 관련 내용에 반복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종교가 특정 시대의 문화 요소나 역사적 사건의 배경으로만 제시될 경우, 학습자는 각 종교가 정치 권력, 사회 질서, 생활문화, 예술, 민중의 저항과 결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강의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종교·사상적 맥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제한적인 외국인 학습자는 강의 내 종교 관련 내용의 구성과 분포에 따라 한국사 및 한국 문화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대상 한국사 강의에서 종교·사상 관련 내용의 분포와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강의 내용의 균형성과 문화적 맥락 전달 방식을 점검하는 데 필수적이나, 이와 관련한 계량적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2.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강의에서의 종교

외국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사 교육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를 목적으로 한다. 과거의 한국사 교육이 민족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내향적 목적에 치중했다면(Kang et al., 2025: 205), 현대 교육은 한국 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상호 문화적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외향적·통합적 방향을 지향한다(Park, 2019: 96).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은 정치사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 문화, 사상, 생활사 등 통합적 관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종교는 한국인의 사유 방식과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 근간이자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이해하게 하는 핵심 매개체로 활용된다. 삼국·고려시대의 불교나 조선시대의 유교는 당대의 통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 일상을 규정하는 문화적 총체였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 현장의 교재와 온라인 강좌들은 종교적 요소를 한국사 서술의 구조적 필수 요소로 포함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National Association of History Teachers, 2021)는 생활과 문화 단원에 ‘하늘에 제사 지내기’, ‘불교 문화의 발달’, ‘유교 문화의 확산’ 등을 배치하여 종교적 배경을 역사 서술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내 한국사에도 역시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 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 등을 국가 건국과 발전의 기틀로 다루며 필수 소양으로 제시한다(Seol, 2020).

온라인 플랫폼 K-MOOC에 개방된 한국사 강좌 중에서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고려대 K-히스토리 학술확산연구단은 <한국의 종교와 다양성> 강좌에서 종교를 직접 다루거나, <한국사 입문> 강좌에서 고려를 ‘불교국가’, 조선을 ‘유교국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종교를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연세대 K-학술확산연구소사업단은 글로벌 한국사 시리즈를 통해 세계사적 맥락과 제도·사상을 다층적으로 접근하며, 전통 건축 한옥 강의 등에서 불교와 유교 건축의 미학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사 속에 담긴 종교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열쇠로서의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3. 한국사 교육 내용에서 종교 서술 관련 선행연구

한국사 교육에서 종교 서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서술 관점과 내용 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종교·사상이 한국사 형성에 미친 역할에 주목하여 역사교육에서 종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의미화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이세현(Lee, 2003: 101-119)은 유교를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가치체계이자 보편적 생활윤리의 기반으로 설명하였고, 정현숙(Chung, 2003: 27-49)은 조선 후기 가톨릭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유교와 가톨릭의 충돌 및 토착화 논의를 통해 정체성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종교와 정체성의 관계에 치중하여 역사교육 콘텐츠 자체의 종교 서술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교과서의 종교 서술을 직접 분석한 유요한(Yoo, 2009: 39-57)은 교과서가 종교를 민족주의적 특수성이나 정치·경제적 요인의 부산물로 설명하며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으나, 실제 분포와 연결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정선화(Jeong, 2022: 121-175)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가야사 서술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특정 키워드의 반복 연결 구조와 주변적으로 배치 경향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서술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종교 서술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과서 서술의 관점을 질적으로 검토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종교 관련 내용의 실제 분포와 연결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 한국사 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종교 유형별 어휘의 출현 양상과 시대별 연결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텍스트 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결합하여 종교 관련 어휘의 출현 양상과 구조를 계량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전체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표 1> 연구 절차
<Table 1> Research process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텍스트 마이닝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
원자료 수집 (강의 스크립트) 종교별 핵심 키워드 사전 구성 분석 대상 데이터 1차 추출(15,227문장)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다의어·위험단어 연구진 수기 검토 최종 분석 데이터 13,000문장 추출	TF·TF-IDF 분석 종교별 핵심 어휘 분석 시대별 교차 빈도	동시출현 행렬 구성 시대별 네트워크 지도 구성 연결·매개 중심성 분석 및 비교

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K-MOOC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 중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사 전 시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K학술확산연구소의 글로벌한국사 시리즈 강좌를 선정하였다.

강의 텍스트는 K-MOOC 플랫폼에 공개된 동영상 자막 파일(SRT)을 기반으로 수집하였다. 자막 파일이 제공되지 않는 강좌의 경우 동영상 재생 시 표시되는 자동 생성 자막을 활용하되, 오류가 다수 포함된 자동 인식 자막은 수작업 교정을 거쳐 최종 텍스트를 확정하였다. 수집된 텍스트는 강의별, 주차별, 차시별로 파일을 구분하여 저장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전체 텍스트의 규모는 40개 강좌, 1,700차시 분량이었다. 이러한 원천 데이터로부터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종교 관련 담론을 정밀하게 추출하고 분류하기 위해, 역사학 전공 연구진의 교차 검증을 거쳐 ‘시대 구분 기준’과 ‘종교별 핵심 키워드 사전’을 구축하였다.

우선, 시계열적 담론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시대 구분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통용되는 주요 시대 구분 기준을 반영하여 총 8개 시대로 구성하였다. 각 강의 차시는 강의 내용과 주차 구성을 기준으로 해당 시대에 할당하였으며, 내용이 두 시대 이상에 걸치는 경우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중복 분류를 허용하였다. 구체적인 시대 구분 및 매칭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시대 구분 기준
<Table 2> Criteria for periodization

시대	범위	시대	범위
선사	구석기~고조선	조선후기	임진왜란 이후~개항 이전
고대	삼국~남북국시대	개항기	개항~대한제국기
고려	고려시대 전체	일제강점기	1910~1945
조선전기	조선 건국~임진왜란 이전	현대	해방 이후~현재

다음으로, 종교 유형별 어휘 분석을 위한 키워드 사전은 한국사 교육과정 및 관련 선행연구 문헌을 기준으로 삼아 민간신앙, 민족종교,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개신교의 총 7개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도구인 종교별 핵심 키워드 사전은 자료 추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고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축하였다.

첫째, ‘원천 후보 어휘 추출’은 종교 전공학자가 ‘한국의 종교와 사상’을 주제로 강의한 「한국을 변화시킨 사상」과 「한국의 종교와 다양성」에서 선정되었다. 두 강좌는 각각 6개, 총 12개의 주제로 960분에 걸쳐 한국사의 종교와 사상을 시대순으로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직접적으로 종교와 사상을 다룬 이 강좌의 내용 전체를 텍스트로 옮겨 고유 명사를 전체 추출하여 키워드로 정리하였다. 이후 추출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1차적 기준으로 고려하여 종교 유형별 후보 키워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작업은 한국역사 전공자(박사, 대학 교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둘째, ‘최종 사전 확정 및 다의어 정제’를 위하여 각 종교의 사상, 제도, 인물, 문화유산 및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되, 종교적 맥락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일반 역사 어휘는 제외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진 전체 회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여러 종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거나 문맥에 따라 의미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경계성 어휘(예: ‘선교’, ‘신선’ 등)의 경우, 강의 내에서 실제 활용되는 서사적 문맥에 맞게 연구진이 직접 수기 검토하여 해당 종교 범주로 정확히 분류 및 라벨링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7개 종교 유형에 걸쳐 중복을 포함하여 총 402개의 분석 핵심 어휘를 최종 선정하였다. 각 종교별 구체적인 어휘 수는 유교 103개, 불교 102개, 민간신앙 63개, 개신교 39개, 민족종교 35개, 천주교 31개, 도교 29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여 총 15,227개의 종교 관련 유효 문장을 1차적으로 확보하였고, 종교 유형별 핵심 키워드 사전에 포함된 주요 어휘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종교 키워드 사전 구성
<Table 3> Construction of a Religious Keyword Dictionary

종교 유형	핵심 키워드 예시
민간신앙 (63개)	굿, 기우제, 단군, 단오제, 풍수, 명당, 만신, 무녀, 무당, 무속, 미륵, 비보, 산신, 삼신, 샤머니즘, 신령, 애니미즘, 정감록, 제사장, 제천, 천신, 토속신앙, 토데미즘 등
민족종교 (35개)	동학, 천도교, 대종교, 단군교, 증산교, 인내천, 시천주, 교조신원, 동경대전, 용담유사, 집강소, 사발통문, 포접, 접주, 최제우, 최시형, 전봉준 등
불교 (102개)	승려, 사찰, 사원, 불교, 선종, 교종, 대장경, 보살, 화엄, 밀교, 팔관회, 연등회, 호국불교, 승유억불, 도첩, 승과, 사리, 미륵, 스님, 출가, 범회, 화쟁, 회통, 황룡사, 해인사, 미륵사, 부석사, 송광사, 봉은사, 원효, 의상, 의천, 이차돈, 자장, 지눌 등
유교 (103개)	과거, 성리학, 유학, 경세, 사대부, 제사, 관혼상제, 실학, 위정척사, 종묘, 사직, 오례, 예교, 수기치인, 문치주의, 복학, 양명학, 논어, 대학, 중용, 맹자, 효경, 성균관, 향교, 서원, 국자감, 문묘, 도산서원,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정도전, 이황, 율곡, 공자, 맹자, 주자 등
도교 (29개)	도교, 도가, 신선, 음양, 오행, 음양오행, 도참, 도관, 산신, 소격서, 칠성, 팔관회, 양생, 방사, 불로장생, 초제, 도덕경 등
천주교 (31개)	천주교, 서학, 박해, 선교, 선교사, 순교, 신부, 주교, 성당, 세례, 천주, 천주학, 천주실의, 황사영백서, 예수회, 사목, 김대건, 이승훈 등
개신교 (39개)	개신교, 기독교, 선교, 선교사, 성경, 목사, 장로교, 감리교, 전도, 복음, 부흥운동, 산업선교, 만민평등, 교회, 이화학당, 승동교회, 연동교회, 신학교, 제암리교회 등

3. 데이터 전처리

수집된 15,227개의 종교 관련 문장 데이터로부터 분석의 정밀도를 저해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석 및 명사 추출 과정에는 파이썬(Python) 기반의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KoNLPy의 MeCab 모듈을 활용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추출된 명사 어휘군 중 담론의 맥락과 무관한 일반 어휘 및 지시어, 그리고 강의 특성상 반복 사용되는 어휘(예: ‘여러분’, ‘수업’, ‘이야기’, ‘이제’ 등)를 ‘사용자 정의 불용어 사전(Custom Stopword Dictionary)’으로 구축하여 일괄 제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된 형태소 분석기의 기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의어와 위험 단어를 연구자가 수기 검토하였다.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에 따라 의미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위험 단어(예: 유교의 국가 시험을 뜻하는 ‘과거’와 지나간 시간을 뜻하는 ‘과거’, 종교적 갱신을 뜻하는 ‘부흥’과 일반적인 세력 확장을 뜻하는 ‘부흥’ 등)가 포함된 문장들을 별도로 스크리닝하였다. 이후 연구진이 개별 문장을 직접 전수 검토하여 종교적 맥락에서 이탈한 문장들을 분석 대상에서 수기로 삭제 및 정제하였다. 이러한 엄밀한 정성적 검증 과정을 거쳐 초기 추출

데이터 대비 약 14%의 노이즈를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000개의 유효 종교 담론 문장을 최종 분석 데이터로 확정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강의 텍스트의 계량적 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였다.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정제된 13,000개의 종교 문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각 종교가 어떠한 보편적 이미지와 변별적 속성으로 전달되는지 규명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층위인 단어 출현 빈도 분석(TF, Term Frequency)과 단어빈도-역문서빈도(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 분석(Salton & Buckley, 1988)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종교 유형별 단순 출현 빈도(TF) 분석을 수행하여 강의 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고빈도 핵심 어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종교 유형이 한국사의 주요 시대적 배경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지형을 파악하였다. 둘째, 모든 종교 담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변별력이 낮은 일반 역사 용어의 영향을 상쇄하고자 TF-IDF 가중치 분석을 병행하였다. TF-IDF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서에 걸쳐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단어의 가중치를 낮추고 특정 종교 담론 내에서만 독자적인 중요도를 지니는 ‘변별적 핵심 어휘’를 추출하였다(Salton & Buckley, 1988; Aizawa, 2003; Lee, Lee, & Kim, 2019). 이를 바탕으로 각 종교 유형이 한국사 교육 담론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상적·역사적 정체성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8개 시기(선사, 고대,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로 분류하여 구축한 시대별 데이터로 각 시대 내에서 종교 유형들이 차지하는 출현 비중(%)의 시계열적 추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2) 사회연결망 분석(SNA)

종교 키워드들이 단순히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수준을 넘어, 강의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의미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의 일환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노드(Node)와 엣지(Edge)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개별 요소 간의 관계적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Kim & Kim, 2016), 텍스트 분석에서는 키워드 간 동시출현 관계를 네트워크로 형상화하여 의미 구조를 시각화하는 데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키워드

와 역사적 개념어의 연결 구조를 시대별로 비교하기 위해 SNA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앞선 전처리 단계에서 정제된 각 시대별 데이터셋으로 동일한 문장 내에 출현하는 유효 형태소 어휘들이 서로 함께 출현하는 동시출현 행렬(Co-occurrence Matrix)을 구성하였으며, 동시출현 빈도를 연결선의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주요 네트워크 지표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연결 중심성은 특정 노드와 직접 연결된 다른 노드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키워드가 얼마나 많은 개념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담론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적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했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 간의 최단 경로상에 특정 노드가 위치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로 다른 개념 영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가교 키워드를 식별하는 데 활용되었다(Freeman, 1979).

시대별 네트워크 구조의 구현 및 지표 산출에는 파이썬의 NetworkX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레이아웃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출된 좌표를 바탕으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통해 최종 시각화를 구현하였다. 네트워크 지도 시각화 시 노드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에, 엣지의 두께는 동시출현 빈도(가중치)에 비례하도록 설정하여 시기별 종교 담론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대조하였다.

3) 분석 기준 및 데이터셋 통제 설정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계량 분석의 학술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단위와 데이터셋 구축 및 네트워크 경계 설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첫째, TF-IDF 분석에서 가중치 산출을 위한 ‘개별 문서’의 단위는 종교 라벨이 부여된 ‘개별 유효 문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른 전체 문서 집합의 크기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최종 정제된 총 13,000개의 문장 전수로 설정하였다. 이때 하나의 문장에 복수의 종교적 맥락이 중첩되는 경우 다중 라벨링을 허용하여 담론의 복잡성을 반영하였다.

둘째, 시계열적 비중 추이 분석을 위한 시대별 데이터셋 구축은 2단계의 연계 과정을 거쳤다. 우선 강의의 최소 구성 단위인 ‘차시’를 기준으로 해당 강의 내용이 속하는 역사적 시대를 라벨링 하였으며, 복수의 시대에 걸치는 서사의 경우 중복 시대 라벨링을 적용하였다. 이후 해당 차시에 부여된 시대적 맥락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에서 종교 관련 유효 문장만을 최종 추출함으로써 시대별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비교 가능한 8개의 시대별 문장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셋째,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동시출현 행렬의 구성 단위는 ‘동일한 단일 문장’으로 제한하였다. 즉, 하나의 문장 구조 내에서 두 어휘가 동시에 출현한 경우에만 두 노드 사이에 유의미한 연결 관계(Edge)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네트워크의 복잡도를 제어하고 의미망의 시각적·학술적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노드와 엣지의 포함 기준 및 시각화 임계값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네트워크 지표 산출을 위한 분석 대상 노드는 형태소 분석 및 불용어 정제 절차를 거쳐 도출된 유효 어휘 전수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유실 없는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본문에 제시되는 네트워크 시각화 지도의 구현 시에는 담론의 핵심 전달력을 높이고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 상위 20개 핵심 어휘로 시각화 범위를 제한하였다. 연결선에 해당하는 엣지는 문장 내 동시출현 빈도가 최소 2회 이상인 관계만을 유효한 연결로 포함하였으며, 출현 빈도가 1회인 단어쌍은 분석 및 시각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종교 유형별 관련 어휘의 출현 양상 및 담론의 고유성 분석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강의 텍스트에서 종교 유형별 어휘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독립된 신앙 체계보다는 한국사 전개 과정에서 수행한 사회적 기능에 따라 어휘군을 구성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출현 빈도(TF) 분석으로 보편적 노출 어휘를, TF-IDF 가중치 분석으로 타 종교와 구별되는 고유한 정체성 어휘를 파악하였다. 각 유형별 상위 어휘는 종교가 한국 사회의 통치, 변혁, 전통 형성에 기여한 독자적인 기능적 영역을 점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위 출현 빈도 어휘(TF)와 TF-IDF 가중치 분석을 통해 타 종교와 차별화되는 해당 종교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신앙 및 민족종교는 한국사의 기원과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기제이다. 먼저 민간신앙은 ‘단군’, ‘무속’, ‘풍수’ 등이 TF와 TF-IDF 분석에서 모두 최상위 어휘로 도출되어 한국인의 기저 의식과 공간관을 규정하는 생활 밀착형 전통문화로서 서술된다. 민족종교는 TF-IDF 분석 결과는 ‘단군’이 강력한 변별적 핵심 어휘로 나타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권위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학농민전쟁’, ‘농민군’, ‘전봉준’ 등이 강력한 변별력을 가졌다. 이는 민족종교가 민족 기원 서사를 바탕으로 하되 신앙 차원을 넘어 근대 전환기 민중의 에너지를 결집시킨 ‘실천적 저항 담론’으로도 재현됨을 입증한다.

둘째, 불교는 ‘승려’, ‘사원’ 등 제도적 실체의 노출도(TF)가 압도적이었으나, 담론의 고유성은 ‘사리’, ‘원효’, ‘선종’ 등 인물과 수행 중심의 가치가 더해져 정교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승려’와 ‘사원’이 불교 담론의 보편적 배경을 형성한 가운데, 특정 인물이나 수행 전통이 변별적 정체성을 구성함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가 국가 통합의 이념이자 한국의 미학적 정체성을 대표

<표 4>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 텍스트의 종교 유형별 TF와 TF-IDF 분석(상위 10 어휘)

<Table 4> Top 10 Keywords in TF and TF-IDF Analysis
of Korean History Lectures for Foreigners by Religious Category

TF 상위 10							TF- IDF 상위 10						
민간 신앙	민족 종교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개신교	민간 신앙	민족 종교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개신교
단군 (737)	단군 (737)	승려 (1516)	과거 (1339)	산신 (91)	서학 (305)	교회 (268)	단군 (0.567)	단군 (0.713)	승려 (0.701)	제사 (0.449)	산신 (0.459)	선교사 (0.563)	교회 (0.538)
풍수 (504)	운동 (186)	사원 (560)	제사 (1198)	신선 (74)	선교사 (218)	선교사 (218)	무속 (0.391)	동학농민전쟁 (0.238)	사원 (0.228)	과거 (0.390)	신선 (0.426)	서학 (0.451)	선교사 (0.512)
무당 (445)	천도교 (132)	고려 (492)	조선 (988)	음양 (51)	조선 (212)	선교 (215)	무당 (0.388)	농민군 (0.228)	사리 (0.215)	조선 (0.288)	음양 (0.294)	박해 (0.294)	선교 (0.432)
무속 (395)	동학농민전쟁 (124)	사찰 (479)	유학 (490)	제사 (42)	박해 (133)	성경 (103)	풍수 (0.388)	조선 (0.198)	사찰 (0.195)	경세 (0.236)	오행 (0.256)	조선 (0.277)	성경 (0.180)
조선 (200)	농민군 (119)	신라 (323)	고려 (481)	고려 (41)	신자 (110)	운동 (91)	조선 (0.154)	운동 (0.180)	고려 (0.177)	종묘 (0.169)	제사 (0.212)	신자 (0.163)	목사 (0.124)
제사 (121)	최제우 (117)	원효 (282)	경세 (409)	천도교 (38)	서양 (93)	조선 (89)	군장 (0.121)	미륵 (0.145)	원효 (0.149)	관례 (0.143)	팔관회 (0.182)	선교 (0.152)	운동 (0.108)
미륵 (102)	미륵 (102)	사리 (251)	성리학 (354)	팔관회 (36)	신부 (71)	활동 (80)	제사 (0.120)	천도교 (0.145)	선종 (0.144)	유학 (0.143)	천도교 (0.169)	신부 (0.136)	조선 (0.106)
신화 (96)	서학 (92)	선종 (236)	정치 (346)	오행 (33)	선교 (69)	미국 (77)	미륵 (0.115)	전봉준 (0.134)	의상 (0.142)	고려 (0.140)	고려 (0.161)	교회 (0.130)	미국 (0.104)
군장 (93)	전봉준 (70)	의상 (234)	시험 (346)	사상 (32)	교회 (59)	목사 (71)	명당 (0.099)	농민 (0.115)	신라 (0.116)	경연 (0.137)	연등회 (0.146)	서양 (0.121)	전도 (0.100)
산신 (91)	봉기 (63)	스님 (223)	제도 (312)	근대 (22)	수용 (58)	예수 (56)	비보 (0.096)	최제우 (0.113)	스님 (0.103)	잡과 (0.115)	사상 (0.142)	주교 (0.114)	활동 (0.095)

하는 ‘문화유산’으로 확고한 위치를 실증한다.

셋째, 유교의 TF 및 TF-IDF 분석 결과 ‘과거’, ‘제사’ 등 제도적 어휘의 순위가 높았으며, TF 상위 어휘 목록에 없었던 ‘종묘’, ‘경연’, ‘잡과’가 TF-IDF 가중치 상위 어휘로 새롭게 도출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유교가 단순한 유학 사상을 넘어 국가 운영 전반을 조직하고 통치 철학을 구현하는 ‘정치·사회 시스템의 근간’으로 교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기독교(천주교·개신교)의 TF 및 TF-IDF 분석 결과, 두 종교는 한국사 유입 과정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담론의 지형 차이가 뚜렷하다. 천주교가 ‘선교사’, ‘서학’, ‘박해’, ‘신자’ 등이 최상위 가중치를 나타내어 초기 수용기의 갈등과 역사적 사건에 집중된 ‘수난의 역사’로 정의

<표 5>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동영상 강의 텍스트의 시대별 종교 유형 출현 빈도 및 비중

<Table 5> Frequency and Proportion of Religious Types by Period
in Korean History Video Lectures for Foreign Learners

종교 시대	민간신앙	민족종교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개신교	총계
선사	148 (48.7%)	68 (22.4%)	30 (9.9%)	43 (14.1%)	12 (3.9%)	0 (0.0%)	3 (1.0%)	304 (100.0%)
고대	647 (15.2%)	249 (5.9%)	2170 (51.0%)	1018 (23.9%)	81 (1.9%)	42 (1.0%)	47 (1.1%)	4254 (100.0%)
고려	161 (6.0%)	4 (0.1%)	1126 (42.2%)	1256 (47.1%)	97 (3.6%)	11 (0.4%)	12 (0.4%)	2667 (100.0%)
조선전기	156 (6.4%)	4 (0.2%)	308 (12.6%)	1880 (76.7%)	61 (2.5%)	22 (0.9%)	21 (0.9%)	2452 (100.0%)
조선후기	60 (3.3%)	68 (3.7%)	157 (8.6%)	800 (44.0%)	27 (1.5%)	509 (28.0%)	197 (10.8%)	1818 (100.0%)
개항기	71 (3.6%)	785 (40.3%)	67 (3.4%)	328 (16.8%)	48 (2.5%)	249 (12.8%)	401 (20.6%)	1949 (100.0%)
일제강점기	27 (7.1%)	79 (20.8%)	24 (6.3%)	127 (33.5%)	7 (1.8%)	22 (5.8%)	93 (24.5%)	379 (100.0%)
현대	144 (21.0%)	21 (3.1%)	50 (7.3%)	198 (28.9%)	4 (0.6%)	96 (14.0%)	173 (25.2%)	686 (100.0%)

되었다. 반면 개신교는 ‘교회’, ‘선교사’, ‘선교’ 등 근대 문명 수용과 사회 참여를 주도한 ‘행위자’로서의 맥락이 강화되었다.

다섯째, 도교는 ‘산신’, ‘신선’ 등의 고유 어휘가 관찰되나, 전체 언급 비중은 낮았다. 다만 TF-IDF 상위의 ‘팔관회’, ‘연등회’가 도교 행렬의 변별적 핵심 어휘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한국사 강의 내에서 도교가 독자적 종교 체계로 다루어지기보다 민간신앙·불교·국가 의례 등 타 사상과 중첩·혼합된 ‘보조적 관념 체계’로 재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휘 출현 양상을 비교한 결과, 외국인 대상 한국사 강의는 각 종교의 양적 노출(TF)과 질적 고유 속성(TF-IDF)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유교와 불교가 각각 통치 시스템과 국가 문화의 거대 담론을 형성하는 사이, 민간신앙과 민족종교, 기독교는 각각 생활양식, 사회 변혁, 근대화와 사회 참여라는 세부적 역사 장면을 담당한다. 즉,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서술에서 종교는 개별 신앙 체계를 넘어 국가의 정치·문화·민족적 정체성을 설명하고 변역해주는 ‘사회문화적 기능’ 중심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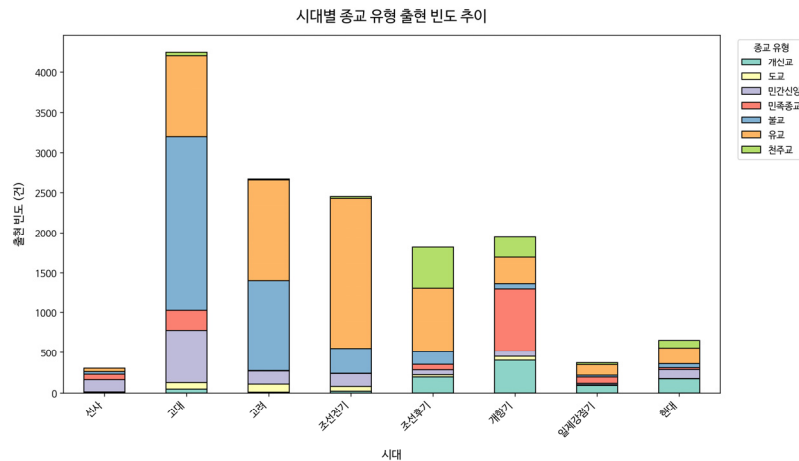
2. 시대별 종교 유형의 노출 정도 및 주류 담론의 전이 양상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강의 텍스트에서 시대에 따른 종교 유형의 노출 빈도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시대별로 특정 종교 어휘의 출현 비중이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각 시대를 관통하는 빈도 분포의 변화는 한국사 전개 과정에서 각 종교 관련 내용이 다루어진 비중을 보여준다.

시대별 종교 유형의 출현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사시대는 민간신앙(48.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민족종교(22.4%)가 그 뒤를 잇는다. 고대에 이르면 불교가 과반인 51.0%를 점유하며 가장 높은 노출도를 보였고, 유교(23.9%)가 뒤를 이었다. 고려 시대는 유교 비중(47.1%)과 불교 비중(42.2%)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두 종교 관련 서사가 병행하여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전기는 유교 관련 어휘의 비중이 76.7%로 급증하는 반면, 불교는 12.6%로 급락하여 유교 중심의 서사가 압도적이었다. 이후 조선후기에는 유교(44.0%)의 비중이 유지되는 가운데 천주교 관련 어휘가 28.0%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며 새로운 사상적 요소의 유입을 반영하였다. 근대 이행기인 개항기에는 동학과 천도교를 포함한 민족종교 비중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래 종교 중에서는 개신교가 20.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유교(33.5%), 개신교(24.5%), 민족종교(20.8%)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대는 유교(28.9%), 개신교(25.2%), 민간신앙(21.0%)이 주축을 이루며 다원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종합하면, 시대별 종교 유형의 변화 흐름은 [선사: 민간신앙 중심 → 고대: 불교 중심 → 고려: 유·불 병행 → 조선전기: 유교 중심 → 조선후기: 천주교 확대 → 개항기·일제강점기: 민



[그림 1] 한국사 시대별 종교 유형 출현 양상

[Figure 1] Trends in the Appearance of Religious Types by Period in Korean History

죽종교·개신교 확대 → 현대: 다원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 강의가 각 시대의 핵심 역사적 사건이나 제도적 배경을 기술할 때, 해당 시기와 밀접한 특정 종교 어휘를 중점적으로 노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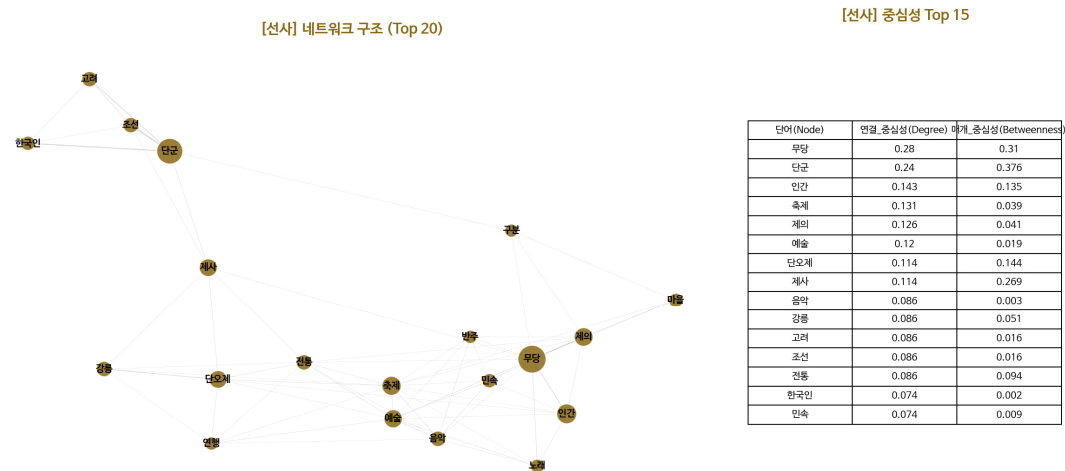
3. 시대별 종교 키워드의 네트워크 구조 및 역사 서사의 지형¹⁾

1) 선사시대: 민족 기원 서사와 제정일치 사회의 구조적 형상화

선사시대 한국사 강의 텍스트의 사회연결망 분석(SNA) 결과, 종교 관련 서술은 ‘단군’과 ‘무당’이라는 두 핵심 노드를 중심으로 계량적 위상이 정립되어 있다.

중심성 분석을 살펴보면 연결 중심성 측면에서 ‘무당(0.280)’과 ‘단군(0.240)’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선사시대의 종교적 맥락이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과 제정일치 사회의 통치자 모델을 설명하는 가장 가시성 높은 주류 키워드임을 보여준다. 매개 중심성 분석에서는 ‘단군(0.376)’이 최상위 위상을 차지하며 신화, 조선, 한국인, 개천절 등 서로 다른 범주의 개념들을 하나의 역사적 맥락으로 잇는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제사(0.269)’ 역시 높은 매개성을 나타내어, 특정 종교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와 주제를 연결하는 전략적 중

RQ3: 선사 종교 키워드 연결망



[그림 2] 선사시대 종교 키워드 연결망
[Figure 2] Religious Keyword Network of the Prehistoric Period

1) 본 절에서 제시된 각 시대별 종교 키워드 연결망 시각화 자료는 가시성을 위해 공출현 상위 20개 노드로 제한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문 서술 중 시각화 자료상 표시되지 않은 일부 연관 어휘 및 노드 쌍 간의 수치는 네트워크 분석 원본 데이터셋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아울러 본문 내 노드 쌍 뒤의 괄호 안 숫자는 동시 출현 빈도를 의미함을 밝힌다.

개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참고: [그림 2]).

이러한 지표 기반의 연결 구조는 세 가지 층위의 서사를 형성한다. 첫째, ‘단군-신화(15)’, ‘단군-조선(14)’, ‘단군-한국인(10)’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은 ‘민족 기원 신화’를 통한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 서술됨을 의미한다. 둘째, ‘무당’을 중심으로 ‘제의’, ‘인간’, ‘교감’ 등이 연결된 구조는 통치자가 영적 매개자였던 제정일치 사회의 맥락을 강조한다. 특히 ‘무당’이 ‘예술’, ‘음악’, ‘노래’ 등과 결합하는 양상은 당시 종교 행위가 통치 행위이자 종합 축제였음을 계량적으로 뒷받침한다. 셋째, ‘개천절-기념’, ‘강릉-단오제’ 등의 연결 구조는 선사시대의 제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계승되거나 제도적 기념행사로 이어지는 기술 맥락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선사시대 강의 텍스트의 네트워크 구조는 ‘단군’을 필두로 한 민족 형성의 중심점과 ‘무당’을 매개로 한 제정일치적 사회 구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사의 출발점을 신화와 종교, 그리고 정치가 종교와 함께하였다는 연결 구조를 인지시킬 수 있다.

2) 고대(古代): 불교적 국가 통합과 삼국 문화의 종교적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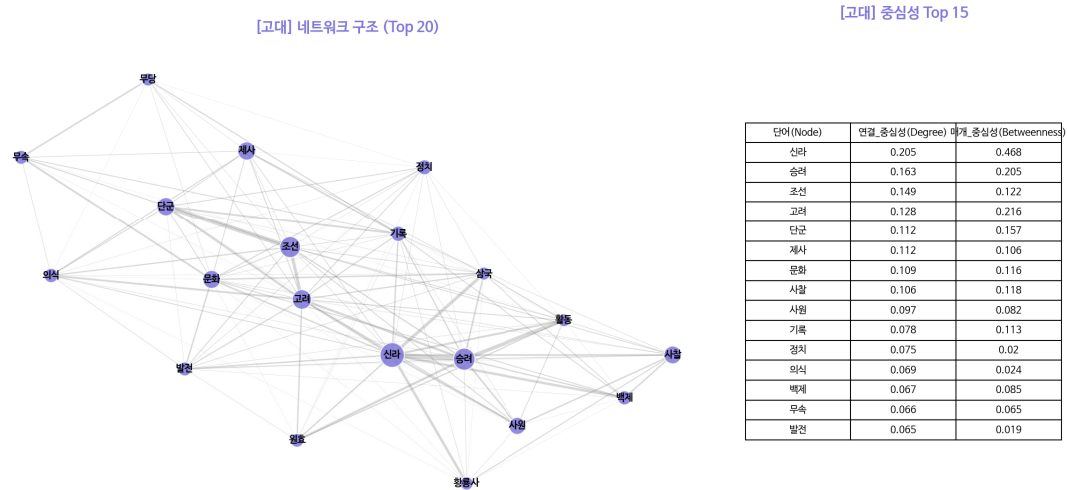
고대(古代) 분석 결과, 종교 담론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 정비와 문화적 성취가 핵심적인 구조를 이룬다.

중심성 분석을 살펴보면, 연결 중심성에서 ‘신라(0.205)’와 ‘승려(0.163)’, ‘조선(0.149)’이 상위에 포진한다. 신라 중심의 담론 구조와 불교의 수용과 확산을 주도한 인물인 ‘승려’가 가시성 높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개 중심성에서 ‘신라(0.468)’가 압도적인 수치로 정치와 종교 문화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기능함이 입증된다. 아울러 ‘고려(0.216)’의 높은 매개 중심성도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지는 종교적 연속성이 수반됨을 시사한다(참고: [그림 3]).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석한 역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승려-신라(48)’, ‘신라-통일(37)’, ‘신라-황룡사(26)’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은 불교가 국가의 왕권 강화와 국가 통합의 이념적 기반이었음을 드러낸다. 특히 원효나 사찰 노드가 정치·발전 등과 결합하며 불교가 통치 원리와 맞닿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금제-사리(44)’, ‘관세음-보살(38)’, ‘사리-영기(38)’의 연결은 삼국의 문화제가 불교 사상과 결합하는 문화사적 맥락을 보여준다. 셋째, 선사시대의 핵심이었던 ‘단군’은 ‘고조선-단군(47)’, ‘단군-신화(49)’의 연결을 통해 여전히 강력한 위상을 유지하며 삼국 형성 전 단계의 토착적 기원을 설명하는 축으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고대(古代) 강의 텍스트의 네트워크는 토착 신앙에서 외래 종교인 불교의 수용으로 이행하는 사상적 변천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 시기는 승려라는 전문 지식인 그룹의 등장과 사찰·사원을 중심으로 사회가 고도화되는 ‘종교적 문명화’의 시기로 설명한다. 이는 고구려 키워드의 희소성과 맞물려, 현존 유적 중심으로 고대사를 재구성하는 현행 강의의 구조적 특징을 계량적으로 보여준다.

RQ3: 고대 종교 키워드 연결망



[그림 3] 고대(古代) 종교 키워드 연결망
[Figure 3] Religious Keyword Network of the Ancient Period

3) 고려시대: 유불 병행의 국가 운영과 다원적 종교 문화의 공존

고려시대 분석 결과, 종교 담론은 불교의 사회적 위상 유지와 유교적 통치 질서의 확립이라는 ‘유불 병행(儒佛 並行)’의 구조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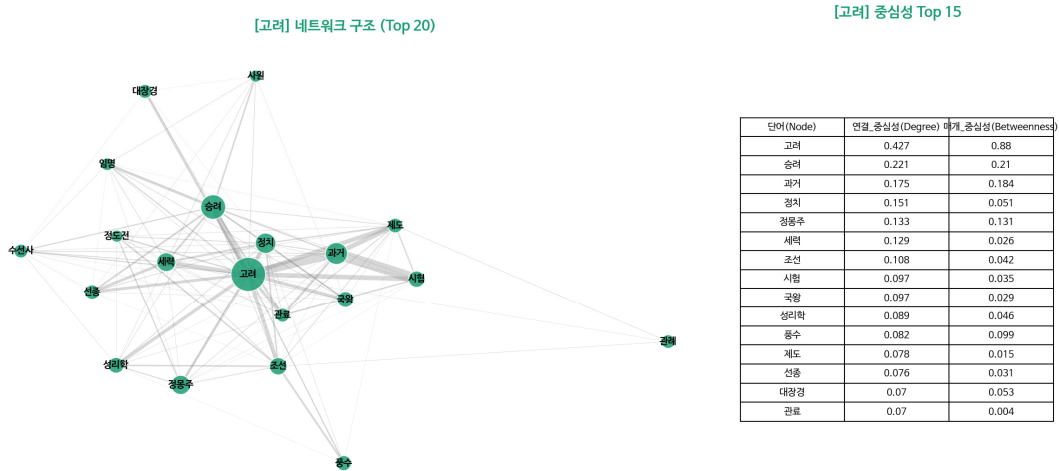
중심성 분석을 보면, 연결 중심성에서 ‘고려(0.427)’, ‘승려(0.221)’, ‘과거(0.175)’가 핵심 노드로 파악된다. 이는 고려가 불교적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적 장치로서 ‘과거’가 주요 맥락으로 다루어짐을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에서는 ‘고려(0.880)’가 가장 높은 수치로 모든 개념을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며, ‘승려(0.210)’와 ‘과거(0.184)’가 그 뒤를 이어 종교와 제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이 확인된다(참고: [그림 4]).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석한 역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시험(111)’, ‘고려-과거(87)’, ‘과거-제도(49)’, ‘과거-합격(35)’ 등으로 형성된 연결망은 고려가 국가 관료 선발과 통치 시스템 유지에 유교적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드러낸다. 둘째, ‘고려-승려(57)’, ‘고려-세력(42)’, ‘승려-출신(29)’으로 이어지는 상위 연결망과 더불어 네트워크 내부에서 관료-승려(21), ‘세력-승려(21)’ 등의 공출현 양상이 관찰되는 점은 불교계가 단순한 신앙 주체를 넘어 정치·경제적 권력 집단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고려-대장경(27)’, ‘수선사-승려(12)’ 등의 구조적 연계 역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불교계가 사회적 혼란 속에서 대장경 판각과 결사 운동을 통해 국가적·사회적 타개책을 주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했음을 대변한다. 셋째, 고려 후기 ‘성리학’의 등장과 ‘정몽주’,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 관련 키워드 유입은 고려가 성리학의 수용을 통해 다음 시대인 조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서사적 맥락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고려시대 네트워크는 불교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유교적 국가 운영 시스템이 맞물리고 풍수 같은 민간 신앙적 요소까지 가미된 복합적 담론 구조를 보인다. 이는 다양한 사상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던 고려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RQ3: 고려 종교 키워드 연결망



[그림 4] 고려 종교 키워드 연결망
[Figure 4] Religious Keyword Network of the Goryeo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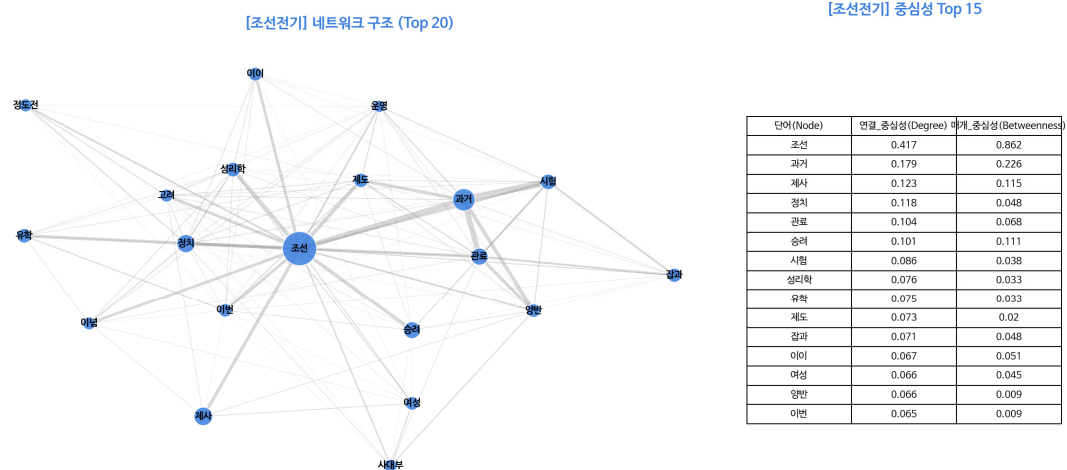
4) 조선전기: 성리학적 통치 이념의 내면화와 양반 관료제 사회의 확립

조선전기 분석 결과, 종교 및 사상 담론은 성리학이 단순한 신앙을 넘어 국가 운영의 근간인 ‘경세(經世)’의 원리로 작동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중심성 분석에 따르면, 연결 중심성에서 ‘조선(0.417)’, ‘과거(0.179)’, ‘제사(0.123)’가 상위 노드로 나타나며, 특히 매개 중심성에서는 ‘조선(0.862)’이 가장 높은 수치로 모든 개념을 통합하는 중심축임을 드러낸다. 또한 ‘과거(0.226)’와 ‘승려(0.111)’가 높은 매개 중심성을 유지해, 유교적 관료 선발 시스템과 잔존하는 불교적 요소가 조선 사회의 맥락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함이 확인된다(참고: [그림 5]).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석한 역사적 맥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시험(69)’, ‘과거-관료(56)’, ‘과거-조선(54)’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은 성리학적 지식이 과거제를 통해 권력과 결합하여 ‘양반 관료제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기제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결망 내 ‘잡과’ 노드의 등장은 유교적 소양을 중시하던 선발 방식이 기술관에게도 투영되어 사회 전반의 제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리학-조선(40)’, ‘이이-조선(29)’의 연결망과 더불어 ‘경세-이이(42)’,

RQ3: 조선전기 종교 키워드 연결망



[그림 5] 조선전기 종교 키워드 연결망
[Figure 5] Religious Keyword Network of the Early Joseon Dynasty

‘경세-조선(27)’이 강한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점은 이 시기 담론이 추상적 이론 연구에 머물지 않고 현실을 개혁하려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전개되었음을 드러낸다. 조선 초기의 기틀을 다진 ‘정도전’ 노드와 체제 정비의 ‘이이’ 노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유교적 경세론이 조선 전반을 관통하는 실천적 사상 기조라는 것을 반영한다. 셋째, ‘억불승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승려-조선 (35)’의 공출현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점은 공식 국가 이념은 유교였으나 왕실과 민간의 생활양식 속에는 여전히 불교적 신앙과 전통적인 제례 의식이 병존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노드가 유교적 관료제 담론과 사대부 담론 사이에서 매개 중심성을 갖는 점은 유교화 과정에서도 종교적 실천이 다층적으로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K-MOOC 조선 전기 강의 스크립트 데이터를 정성적으로 재검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분석 대상인 <한국사의 여성> 강좌의 조선 전기의 유교적 여성 교육서 『내훈』 및 여성 사대부 관련 텍스트 구조를 살펴 보면, 공식적인 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왕실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불당 거행이나 불교 창성, 민간 여성들의 기복적 종교 실천 맥락이 유교적 관료제 서사와 입체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즉, 분석에서 ‘사대부-여성(10)’ 등의 연계를 보유한 ‘여성’ 노드가 높은 매개성을 보인 것은, 한국사 강좌 내 조선 전기 여성 주체들을 둘러싼 유교적 규범과 다층적인 종교적 실천 맥락이 강의 텍스트 내에 실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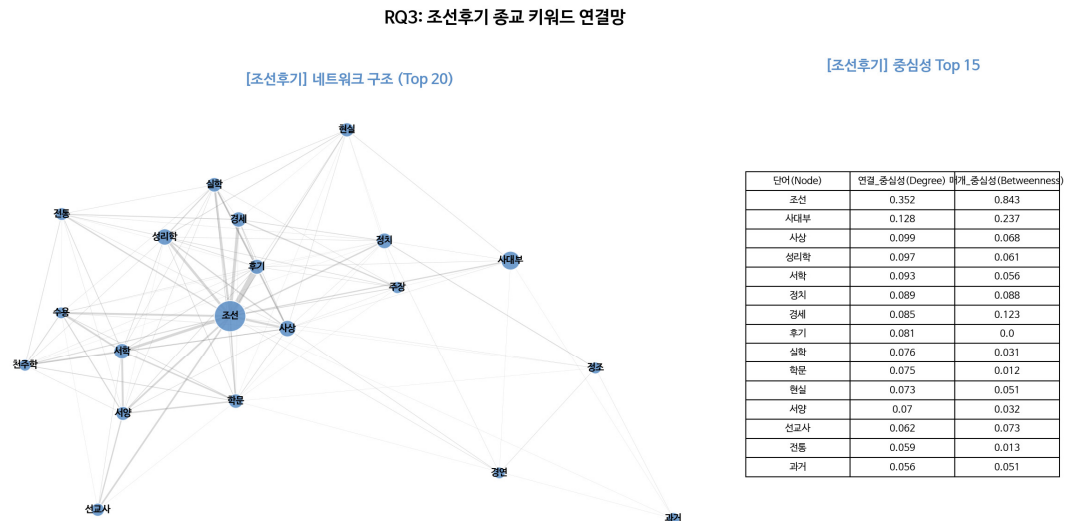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조선전기 네트워크는 성리학이라는 통치 이념이 과거와 관료제라는 틀을 통해 사회를 구조화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한편, 그 이면에 흐르는 종교적 지속성을 함께 포착한다.

5) 조선후기: 성리학적 가치관의 심화와 서학의 학문적 수용

조선후기 분석 결과, 종교 및 사상 담론은 기존 성리학적 질서의 고도화와 ‘서학(西學)’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이 교차하는 구조를 보인다.

중심성 분석에 따르면 연결 중심성에서 ‘조선(0.352)’, ‘사대부(0.128)’, ‘사상(0.099)’이, 매개 중심성에서는 ‘조선(0.843)’, ‘사대부(0.237)’, ‘경제(0.123)’가 상위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후기 사상 담론이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국가 경영의 실천적 방법론인 ‘경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상(0.068)’과 ‘성리학(0.061)’이 상위권의 매개중심성을 보이며 주요 매개자로서 작동하는 양상은 당시 유교가 철학적 논쟁을 넘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종교적 위상으로 심화되었음을 뒷받침한다(참고: [그림 6]).

연결 구조에 나타난 역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조선(31)’, ‘경제-송시열(27)’, ‘경제-정약용(24)’, ‘성리학-조선(26)’의 연결망은 성리학이 사회 지배력을 공고히 했음을 보여준다. 송시열과 정약용 등 상징적 인물들이 ‘경제’와 결합한 구조는 조선후기 유교 지식인들이 현실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국가 경영론을 모색했음을 드러낸다. 둘째, ‘서학-조선(28)’, ‘서양-서학(20)’, ‘서학-수용(18)’, ‘서학-학문(15)’의 연결은 천주교가 초기에는 외래 학문의 일종인 ‘서학’으로 수용되었음을 드러낸다. 셋째, ‘실학-조선(22)’, ‘실학-후기(17)’, ‘조선-지식인(19)’ 등의 결합은 지식인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인 사상을 지향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선교사-조선(17)’과 ‘천주학’ 노드 등장은 서학의 학문적 성격이 점차 종교로 전환되며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 혹은 융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6] 조선후기 종교 키워드 연결망
[Figure 6] Religious Keyword Network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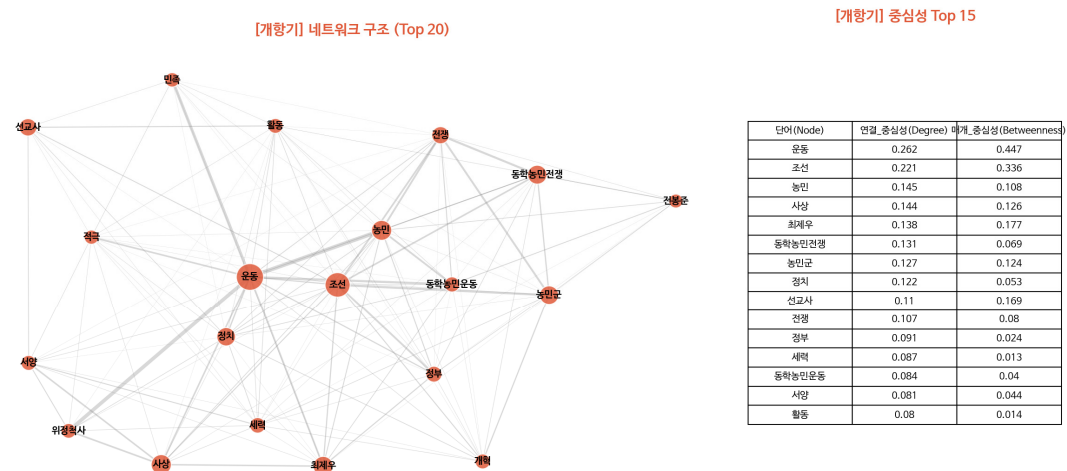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네트워크는 견고한 유교적 담론 위에 이질적인 서학이 학문적 경로로 침투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이는 조선후기가 사상적 경직성이 아닌 새로운 세계관과의 조우를 통해 근대적 변화를 모색한 과도기였음을 보여준다.

6) 개항기: 근대적 민족 운동의 태동과 종교적 신념의 사회적 확산

개항기 분석 결과, 종교 담론은 전통적인 신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변동을 이끄는 ‘운동’의 성격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노드의 중심성 분석을 보면, 연결 중심성에서 ‘운동(0.262)’이 1위를 차지하며, ‘조선(0.221)’, ‘농민(0.145)’, ‘사상(0.144)’ 순으로 핵심 허브 노드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매개 중심성 분석에서는 ‘운동(0.447)’, ‘조선(0.336)’이 중심이 되는 중개자역할을 보였으며, 이어서 민족종교 주체인 ‘최제우(0.177)’와 외래 종교 주체인 ‘선교사(0.169)’가 상위를 기록했다. ‘운동’ 노드의 독보적 중심성은 종교적 신념이 정치·사회적 실천으로 결합하는 근대 이행기의 특징을 집약한다(참고: [그림 7]).

RQ3: 개항기 종교 키워드 연결망



[그림 7] 개항기 종교 키워드 연결망
[Figure 7] Religious Keyword Network of the Open-Port Period

연결 구조에 나타난 역사적 맥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운동(42)’, ‘운동-위정척사(37)’, ‘운동-천도교(26)’, ‘동학농민운동-운동(23)’의 연결망은 종교 담론이 ‘반외세·반봉건’의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대중적인 사회 운동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한다. 둘째, ‘선교-활동(27)’, ‘번역-성경(21)’의 연결은 서학이 선교사를 통해 직접 전파되는 종교적 확산기로 진입했음을 보

여준다. 특히 ‘선교사’ 노드가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는 것은 개신교가 교육, 의료 등 근대적 활동과 결합하며 정착하는 과정을 계량적으로 뒷받침한다. 셋째, ‘전쟁-청일(28)’, ‘동학농민전쟁-전쟁(22)’, ‘농민군-봉기(20)’ 등의 결합은 종교적 동기의 운동이 국제 전쟁과 정치 개혁의 중심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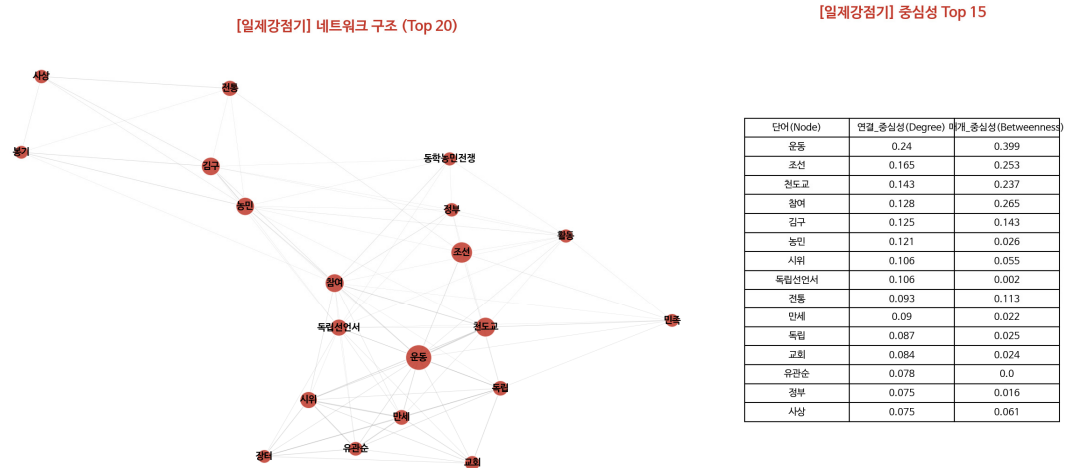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개항기 네트워크는 종교적 신념이 ‘민족 운동’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이는 한국의 근대가 종교적 가치관과 사회적 투쟁이 결합하며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7)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종교와 민족적 참여

일제강점기 분석 결과, 종교 담론은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과 그 실천 주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중심성 분석에 따르면 연결 중심성에서 ‘운동(0.240)’, ‘조선(0.165)’, ‘천도교(0.143)’가 상위를 차지한다. 이는 종교 서술이 개별 교리보다 항일 운동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결합했음을 보여준다. 매개 중심성에서는 ‘운동(0.399)’이 1위로 나타난 가운데, ‘참여(0.265)’, ‘조선(0.253)’, ‘천도교(0.237)’가 높은 수치를 기록해, 종교적 자산이 대중적 항일 실천으로 전환되는 핵심 가교임을 보여준다(참고: [그림 8]).

RQ3: 일제강점기 종교 키워드 연결망



[그림 8] 일제강점기 종교 키워드 연결망

[Figure 8] Religious Keyword Network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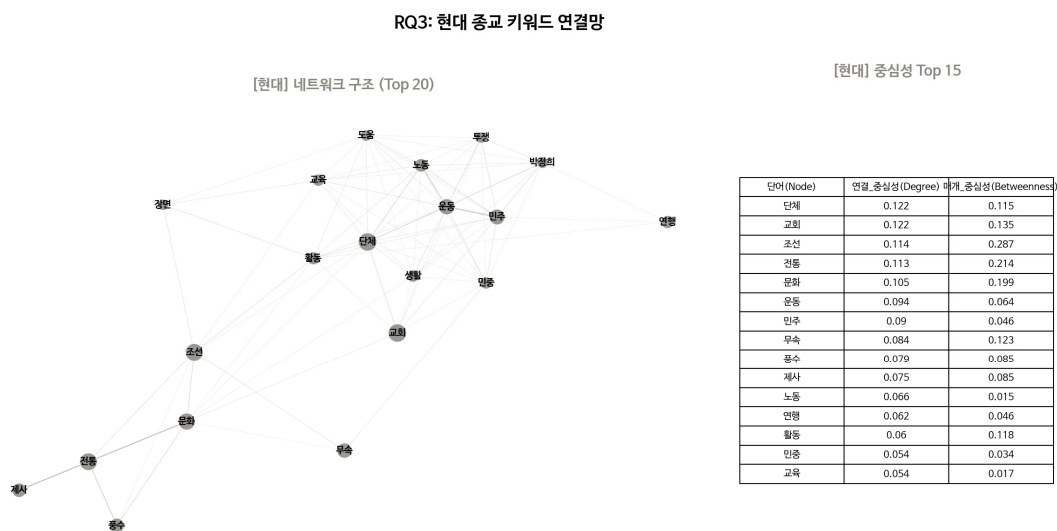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석한 역사적 맥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천도교(12)’, ‘만세-시위(11)’, ‘시위-유관순(9)’, ‘교회-지령(9)’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운동, 시위, 독립선언서 등과 밀착되어 3·1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뒷받침한다. 둘째, ‘김구-농민(7)’, ‘임시-정부(6)’, ‘유관순-이화학당(7)’ 등의 결합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독립운동의 상징적 주체로 부각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전통’ 노드가 높은 매개 중심성(0.113)을 갖는 구조는 당시 종교계가 전통문화와 사상을 지킴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려 했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네트워크는 종교가 ‘독립’을 위한 전 민족적 참여의 플랫폼으로 기능했음을 실증한다. 이는 한국 근대 종교의 강한 사회 참여적 성격과 민족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8) 현대: 종교적 영향력의 파편화와 문화적 전통으로의 재맥락화

현대 분석 결과, 이전 시대와 비교해 종교 키워드의 담론 구조가 유기적인 결합력을 잃고 파편화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중심성 분석을 살펴보면, 연결 중심성에서 ‘단체(0.122)’와 ‘교회(0.122)’, ‘조선(0.114)’, ‘전통(0.113)’ 등이 상위권을 형성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지배적 가치체계라기보다 개별 단체나 교회 단위의 활동으로 분산됨을 시사한다. 한편, 매개 중심성에서는 ‘조선(0.287)’과 ‘전통(0.214)’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교 키워드가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조선’



[그림 9] 현대 종교 키워드 연결망
[Figure 9] Religious Keyword Network of the Contemporary Period

이라는 전통 시대를 고찰하거나 ‘전통’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맥락적 도구로 소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참고: [그림 9]).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석한 역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운동(15)’, ‘노동-운동(11)’, ‘노동-산업선교(7)’ 등의 연결망은 현대사 내 종교의 역할이 주로 민주화·노동 운동과 같은 사회 참여적 맥락에서 서술됨을 보여준다. 둘째, ‘전통-제례(15)’, ‘전통-제사(13)’, ‘문화-전통(12)’, ‘전통-풍수(10)’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는 종교적 요소가 신앙 대상을 넘어 ‘문화적 전통’이나 ‘생활 양식’의 일부로 재인식됨을 시사한다. 셋째, ‘노기남-주교(11)’, ‘외방-파리(9)’, ‘외방-전교회(9)’, ‘전교회-파리(9)’ 등의 결합은, 한국인 최초의 대주교인 노기남 서사와 파리의 방전교회의 활동 등 현대 천주교(가톨릭)의 전래와 제도적 정착 과정을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다룬 특징을 반영한다. 다만 현대 네트워크는 이전 시대에 비해 밀도가 낮고 핵심 노드 간의 응집력이 약화되었는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급감했음을 실증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네트워크는 종교 자체의 독자적 속성보다 역사적 연속성과 전통 계승의 관점에서 이를 재맥락화한다. 이는 한국사에서 종교가 시대를 비추는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 보편적 문화 자산으로 치환되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사 동영상 강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종교 관련 서술의 재현 양상과 구조를 텍스트 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 유형별 관련 어휘의 출현 양상 분석 결과, 종교는 독립 신앙 체계가 아닌 한국사 전개 과정에서 필수적 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체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단어의 단순 출현 빈도(TF)와 특정 시대 담론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상대적 중요도(TF-IDF)를 결합하여 분석했을 때, 유교는 정치 시스템으로, 불교는 국가 통합의 이념으로, 민족종교는 사회 변혁 동력으로 각각 차별화된 의미망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 서술이 개별 교리보다는 공동체 형성에 미친 영향력 등 사회적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시대별 종교 유형의 노출 비중 변화는 주류 담론의 전이 양상을 선명히 드러냈다. 선사시대의 민간신앙에서 고대·고려시대의 불교, 조선시대의 유교 독점을 거쳐, 근현대의 민족종교 및 기독교의 변혁 담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출했다. 이러한 전이는 국가 통합, 체제 유지, 국권 회복 등 각 시대적 과제와 종교적 가치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로 해

석될 수 있다.

셋째,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시대별 종교 개념어들이 역사 서사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가교로 기능함을 확인했다. 선사시대의 ‘단군’과 ‘무당’이 민족의 기원과 정통성을 부여했다면, 고대·고려시대의 ‘불교’와 ‘승려’는 체계적 문명으로서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과거’는 통치 원리로 내면화되었고,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의 ‘운동’과 ‘독립’은 민중의 실천으로 폭발하는 구조적 변화 양상을 보였다. 현대는 분석 결과상 이전 시대에 비해 종교 개념어의 응집력이 약화되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급감했음을 보여주면서도 ‘전통’을 통한 문화적 재맥락화와 ‘사회 참여’라는 개별적 가치가 유사한 비중으로 언급되면서 현대사 서사를 연결하는 역할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핵심 노드의 변천은 한국사 내에서 종교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통치자의 권위(선사), 국가의 통합(고대), 제도의 운영(고려·조선), 민족의 저항(근대), 문화적 자산(현대)으로 그 기능적 허브를 옮겨가며 역사적 서사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텍스트 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결합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은 기존의 질적 내용 분석이 포착하기 어려웠던 한국사 교육에서 종교 관련 서술의 객관적 비중과 구조적 특징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사 강의에서 종교 관련 서술의 분포와 구조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의 콘텐츠의 균형성 검토와 교육적 설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에게 한국의 고유한 종교 개념을 보편적 가치 및 사회적 기능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므로, 한국사 콘텐츠 제작 시 유념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강좌의 어휘 출현 빈도와 연결 구조를 계량적으로 기술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분석 대상을 확장해 종교 서술의 보편적 경향성을 점검하고, 해당 서술 방식이 실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사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후속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학습자와의 심층적인 문화적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사 강좌를 접한 외국인 학습자의 반응과 이해 수준을 환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한국학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

Reference

[Primary Sources]

교육부 (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Translated

-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15). Social Studies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No. 2015-74, Separate Volume 7).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 Social Studies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No. 2022-33, Separate Volume 7).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University The Research Center for Fostering K-History (2022. 03. 02.).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Lecture 1: Year 1) [Video lecture]. K-MOOC. Retrieved March 25, 2026, from <https://www.kmooc.kr/view/course/detail/18475>
- Korea University The Research Center for Fostering K-History (2024. 03. 04.). Diversity in Korean Religion (Lecture 7: Year 3) [Video lecture]. K-MOOC. Retrieved March 25, 2026, from <https://www.kmooc.kr/view/course/detail/18700>
-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Global Korean Studies (2024. 03. 04.). Global Korean History Lecture Zeries: Hanok,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Lecture 6: Year 3) [Video lecture]. K-MOOC. Retrieved 2026. 03. 25., from <https://www.kmooc.kr/view/course/detail/19188>

[Secondary Sources]

- 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Y. H. & Kim, Y. J. (2016). Social Network Analysis (3rd ed.). Seoul: Parkyoungsa.
- 설규주 (2020).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 이해 (기본) 탐구활동 - 최신정보 반영. 서울: 박영스토리. (Translated in English) Seol, G. J. (2020).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for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Basic) Exploration Activities. Seoul: Pybookstory.
-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서울: 휴머니스트. (Translated in English) National Association of History Teachers. (2021). Korean History for Foreigners. Seoul: Humanist.
- Aizawa, A. (2003). An Information-theoretic Perspective of TF-IDF Measure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9(1), 45-65.
- Kim, C. Y. (2018). Acritical evaluation of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Religions*, 9(11) 369, 1-14.

- Chung, H. S. (2003). The Role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s Identity Reform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6, 27-49.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 Jeong, S. H. (2022). Awareness and Image-Telling of Gaya History i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 Focusing on Text Network Analysis.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164, 121-175.
- Kang, E., Oh, J., Kwon, H. & Park, J. (2025).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History Program under the “Fostering a New Wave of K-Academics” Initiative: Toward Its Consolidation as a Sustainable Global Knowledge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30(1), 205-230.
- Lee, S. H. (2003). Identity of Koreans and Religion Education of Confucian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6, 101-119.
- Lee, J. H., Lee, M. B. & Kim, J. W. (2019).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Research Using TF-IDF.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8(3), 105-121.
- Lee, S. J. & Min, K. S. (2022).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in Text-mining: Focusing on College Competency-based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35(1), 165-188.
- Park, G. S. (2019). A Lesson Plan of Korean History for KFL Learner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Regional Development*, 10, 81-112.
- Shin, K. C. (2006).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ject on Description of Religious History in a Korean History Textbook. *Yeoksamunhwa Nonchong [Collected Papers on History and Culture]*, 2, 281-298.
- Sim, J. & Lee, J. (2025). Religious Literac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Challenges and Educational Approaches. *Religions*, 16(6), 786.
- Salton, G. & Buckley, C. (1988). Term-weighting Approaches in Automatic text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24(5), 513-523.
- Yoo, Y. H. (2009). Problems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Description of Relig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ligion. *Religion and Culture*, 17, 39-57.